

# 그 때 그 사람(들)

작가: 김민준  
"그는 어떻게  
나를... 그때 그 사람  
사람들"

제작 심재명 신철  
각본 / 감독 임상수

2004년 명필름 작품

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명필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
|---|-------------|
| 파트1. 인트로덕션.<br>1-15편                                  | 15편 10페이지.  |
| 파트2. 궁정동 연회로 모이는 인간들<br>16-23편                        | 8편 5페이지.    |
| 파트3. 만찬. 박정희 어록/거사 결심<br>24-35편                       | 12편 8페이지.   |
| 파트4. 만찬. 노래 자랑/거사 준비 완료<br>36-48편                     | 13편 5페이지 반. |
| 파트5. 빵! 빵!<br>49-58편                                  | 10편 6페이지 반. |
| 파트6. 거사 후 마무리 궁정동/육본/병원<br>59-66편                     | 8편 6페이지.    |
| 파트7. 궁정동의 확인 사살<br>67-74편                             | 8편 5페이지.    |
| 파트8. 박정의 죽음에 대한 몇몇 반응들<br>육본, 각료들, 병원, 궁정동.<br>75-86편 | 12편 8페이지.   |
| 파트9. 김재규 체포 그리고 그 이후 결말<br>87-105편                    | 19편 9페이지 반. |

1. 타이틀 씬.

재즈 풍으로 편곡된 엔가가 흐르는 가운데 부마사태 다큐멘터리가 보여진다.  
격렬한 시위장면. 화염병. 장갑차. 공수부대. 체포되는 시민들.  
'1979년 10월 26일'

'그 때 그 사람(들)'

2. 실내. 연희동 비밀 요정 - 낮

나른한 가을 오후 햇볕. 마당 자쿠지에서 물장난 치는 처  
녀들 층, 재선이 웃으면서 나와 가운을 걸치고 안채로 들  
어간다.

이층 베란다에서 보고 있는 선우의 심드렁한 표정.  
점잖은 중년의 여인의 목소리가 흐른다.

윤희모

.....새벽에 언뜻 깨 보니 자기 몸을 쓰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곱다, 정말 곱다, 이러시면서. 한없이. 계속. 온 몸을. 그  
래 재가 눈을 뜨고 배시시 웃으니까 그제서야 멧쩍은 듯  
웃을 주섬주섬 챙기시는데, 아니 지가 그냥 자빠져 있을  
수 있겠어요 .....어르신 옷 먼저 입으시라고 저는 벗은  
채로 수발을 들었대요.....벗은 채로....그러다가 결국엔 어  
른이 재를 한번 다시 품어 주시고..... 그 어른 참 대단하  
셔요, 그 나이에, 네? 그리곤 재를 꼭 품으신 채로 그러  
시더라고요, 꼭 다시 놀러오라고, 꼭 다시 보자고.....

조용히 황홀경에 빠져 지껄이는 여인 옆에 청초한 소녀 윤희가 눈을 깜빡이  
고 있고 그 옆 공마담은 속수무책이라는 표정으로 선우에게 손을 모아 비는

시늉을 한다. 나쁜 표정으로 본 척 만 척하는 선우.  
머리가 젖은 재선이 장난스런 표정으로 차를 서브한다.  
윤희 엄마는 자기 앞에 놓인 봉투를 던지시 밀어 선우 앞에 놓는다.

윤희모

제가 청와대구 어디고 쫓아 다닌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바라구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선우의 눈치를 살피지만 선우는 헤실거리는 재선을 꼬나볼 뿐이다.

윤희모

....밀에 분들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어찌겠어요?  
그 분 심중을 헤아려야지, 그 분이 원하는 거! 그 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 재를 따돌리는 거, 큰 실  
수하시는 거예요.....

선우

(잠시 침묵 후 조용한 목소리로 대놓고)  
.....실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으이구,  
이런 또라이....에미라는 게 어떻게....  
아 진짜 세상 이렇게 망가지나, 진짜?

### 3. 실내. 병원 - 낮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제규의 시커먼 병색이 짙은 심각한 얼굴, 몽타쥬.

의사

(소리) 정보부장이시니까 정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해 갖곤 정보부장 해먹기 힘들 거라는  
정보.....쉬세요, 사표 던지고.....  
다시 좀 괜찮아 질 때 쯤 되면, 또 알아요?  
이 살벌한 유신도 끝나고 좋은 세월 올지?  
그 때 가서 또 한자리 하면 되고.....(일본말)

홍주가 양복 저고리를 꺼내 제규의 팔에 끼워준다.  
제규는 말이 없다.

의사

지금 간이 정상치의 십 분에 일도 지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니까 오후만 되도 벌써 피곤하고, 오장육부가 붓구,  
머리도 잘 안돌아가고.....쉬어야 돼.

제규

(대뜸) 내 쉬겠단 소리 함 안 드린 줄 알어?

의사는 말이 없다.

제규

(흥내)... 임자만 오래 살아서 뭐 할려고 그래? 그냥 해.

의사에게 으쓱해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규.  
무전기에다 뭐라고 속삭이는 홍주.

제규

사무라이 나라 사이고가, 이사기 요꾸 나꾸짜!  
(대장부라면 확실하게 끝을 맺어야 될텐데!)

제규가 목례를 하고 진료실을 나간다.

4. 실외. 제규의 차안 - 낮

홍주

(무전기) 부로 이동한다. 앞에서 선도해라.

제규

(은근히) 박대령.

네, 홍주가 대답을 하며 앞자리에 뒷자리의 제규를 살핀다.  
제규가 홍주의 얼굴에다 '하아!' 하고 숨을 내쉰다.  
무표정한 그러나 의아한 홍주의 표정.

제규

어때? 냄새 심한가?

홍주

(헛기침).....

제규

이게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내장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

야. 참 내. 내가 이거 벌써 일년이 넘도록 이 냄새를  
각하한테 뽀고 다녔으니..... 죄송스러워서 원.

홍주

(담담히) 뭐, 그냥 말을 만 합니다.

하면서 입을 손에다 대고 하아! 해서 냄새를 맡아본다.  
제규가 깊숙이 앉으며 눈을 감는다.

5. 실내. 헬기 안 - 낮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헬기.  
묵묵히 내려다 보고 있는 정의. 뒤에 시철, 계연 인영 등이 있다.

계연

(눈치를 살피며) 혁명 때만 해도 여기 다리 하나 없이,  
나룻배에, 온통 뺨발에..... 참 감개무량하시죠?

정의

(무시하고) .....정처장, 그래서 그 물개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듣다 말았잖아.

인영

(비실거리며) 신고 오는 배 안에서 누가 부랄만 발려서  
빼돌린건데, 그거 없는 물개를 뭐에 쓰겠습니까?

정의

그걸 정총리가 먹었다는 증거는 있고?

인영

증거야 없지만 사태는 뻔한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분 대단 하세요. 어차피 한 세상 잠깐 사는 거 맘껏 최대한 따먹 는 게 장땡이다, 이러시면서 여자라면 가리지 않고 그 냥.....

정의

허허, 혜소노 시타노 꼬도와 모도모도 몬다이니 스페끼테 나이. 오도꼬노 꾸세시때.....  
(허허, 배꼽 아래 일은 원래 문제 삼는 게 아냐, 사나이가 시시하게.....)

6. 실외. 궁정동 안가 - 낮

낮게 날아가는 헬기. 마당에서 어슬렁대던 혁술이 헬기를 바라보다 대기실로 들어간다.

‘할아버지 오시나부네’

7. 실내. 경비원 대기실 - 낮

경비원들의 일상풍경.

기조가 형준을 앉혀 놓고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눈다. 헬기소리.



기조

북조선에선 세금을 안내죠. 그것 하난 맘에 들어요,  
그러면?

형준

삼조 이항, 북괴 찬양!

기조

그냥 인사조로 맞장구를 치지? 네, 그렇겠군요. 응?

형준

삼조 삼 사 오항, 고무, 찬양, 회합!

기조

전 총련 일을 하느라 고국엘 못가요. 요번에 가시면 고향  
소식 좀 전해 주세요.

형준

지령 사항이 되죠, 그건 사조 일항.

기조

그래서 그 인간이 입국하면, 잠입. 친구의 고향에 내려가  
면 탐문 수집, 스케줄을 잘 맞춰 일본행 비행기를 타면,  
탈출. 돌아와서 전화로 당신 고향 개고기 맛은 정말 일품  
이야, 그러면 통신 연락에 보고가 되는 거고.  
이걸로 반공법 간첩죄 플코스스가 성립되는 거라구.

형준

(순진하게) 하! 간첩 잡기 정말 쉽네, 응?

기조

허! 간첩은 잡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래니까.....

혁술이 들어온다.

기조

(혁술에게) 할아버지 오시나 보던데...

형준

부장님도 같이 오셨겠네?

혁술

자식아, 부장님은 차실장한테 빠꾸당했어.  
가지도 못했다구.

형준

(기조에게) 왜?

기조

헬기에 자리없다고

8. 실내. 차실장 김무실 - 낮

독일 유겐트식 모자와 윗도리를 갖춰 입고서 거울을 보고 있는 시철의 상반신. 계언에게 걸어오면 아랫도리는 아직 입지 않은 채로 뺨스 차림이다.

시철

(서류를 계언에게 건네며 비서관에게)

바지 왜 빨리 안 가져오는 거야?

(여유있게 웃으며) 실장님한테 부끄럽게스리....

의아한 표정의 계언이 서류를 들쳐 보고 있다.

시철

그게 뭘니까?

계언

(인상 쓰며) 차실장, 차실장은 차실장일이나 하시오,

내가 각하께 보고 드린 걸 당신이 웬 상관이오?

시철

비서실장실님. 에또..... 이렇게 말하면 어떠실지 모르겠

는데, 까짓것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실장님! 실장님은

여기에 술상무로 오신거 아녜니까, 술상무, 술실장!

각하도 나도 실장도 다 아는 거잖아요.

계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시철

각하요, 외롭습니다, 고독하십니다! 같이 술친구 헤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보고서를 코 앞에 흔들며)  
이런 쓸데없는 짓은 안해도 되고!

그때 인터폰이 온다. 잼싸게 뛰어가서 부동자세로 전화를 받는 시철.

시철

예 각하! ..... 예. .... 예. 여기 같이 있습니다. 예.

9. 실내. 정의 집무실 - 낮

활짝 열린 금고 앞에 강아지를 안은 채 서 있는 정의.  
뒤에 양손에 수표 뭉치를 들고 서있는 비서관이 정의의 눈치를 보며,

비서

오천짜리 백장하고, 이건 마흔 일곱장, 합이 구억 칠천입  
니다.

정의가 다시 수표 한 뭉치를 꺼내고 금고 문을 잠근다.  
저쪽으로 계언이 들어온다.

정의

(수표 뭉치를 건네며) 아귀를 맞춰서 내가고 우수리는  
내 책상으로 가져와! 그리고 돈 들 좀 아껴 써.

책상 쪽으로 오는 정의. 계언이 그 옆에 공손히 서있다.

정의

아래, 앵까 우마이꼬 아루다로?  
(왜 그 앵까 잘 부르는 애 있잖아?)

계언

아, 네 수봉이데쓰.  
(아, 예. 수봉이요.)

정의

소래, 수봉이. 교와 아노꼬노 우다 죠또 기끼타이네.  
(응, 그래 수봉이. 임자 나 오늘 개 노래나 좀 들었으면  
 좋겠어.)

계언

이이데쓰. 도꼬, 궁정동 데쓰까?  
(종쵸. 어디 궁정동에서?)

#### 10. 실내. 남산 중정 - 낮

어둡고 긴 복도의 양쪽에는 많은 문이 있다.  
선우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걸어간다.

‘내가 뭐라 그랬어! (발로 찬다) 응 이새끼야. 육하원칙으로 얘길하란 말야.  
육하원칙! (계속 발로 찬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응? 응? 또 하난.....

야 또 하나는 뭐냐?’

‘이 새긴 자꾸 말 바꾸는 거 보니까 보긴 보단 진짜 악질이네, 그래.’

‘으이, 진짜 옛날이 좋았지, 육이오 때처럼 그냥 뒷 마당에 끌구 가서리....

짜 버리면 얼마나 편해?’

‘너 피카소 그림 한점 있대메?’

‘아, 예 조그만 판화요... 쓴거예요.’

‘너 피카소가 누군지나 알아?’

‘예?... 유명한 화가 아십니까?’

‘이 자식이 장난치나, 너 피카소가 스페인 공산당 당원이었던 거 알아, 몰라?’

‘예? 피카소가요? 파블로 피카소가요?’

‘야, 조저!’

‘아아! 아파요! 전 피카소가 공산당원인 건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요! 아!’

선우

(혼자말) 피카소가 공산당원이라...

그걸 씨발 우리가 어떻게 알어?

이윽고 선우가 끝 방에 도착해 안쪽을 들여다 본다.

테이블 위에는 안대를 한 윤희 모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다.

성욱

보셨죠? 뭐구 뭐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쳐 넣어, 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윤희모

(울먹이면서도) .....그럼 그냥 쳐 넣어 주세요.

윤희

아이 엄마! 아저씨 잘못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할테니  
그냥 보내만 주세요.

윤희모

(운다)...엉엉...당신들이 사랑을 알려, 사랑을? 응?  
사랑을 아냐고? 엉엉..

기막혀하는 성욱.

선우

에게게,,,참 가지가지로 놀구 자빠졌네, 증말...  
이 아줌씨 이거 순진한거야 또라이인거야?

11. 실내. 남산 부장 집무실 - 4:00 pm

침대에 누워 등에 부황을 뜨고 있는 제규.  
홍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홍주

부장님. 오늘 저녁 궁정동에서 연회하십니다,  
큰 걸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제규. 시커먼 썩은 피가 등에서 나온다.

계규

(느닷없이) 참모총장 전화 좀 대 봐.

12. 실외. 거리 - 낮

선우의 차가 거리 한가운데에 윤희 모녀를 내려놓고 사라진다.

선우

사모님,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네? 아셨죠?

아셨으면 내리세요. 그래, 어머님 잘 모셔.

입조심하게 하고.

답에 또 만나면 진짜 큰일난다?

소리

(무전기) 삼십일번차, 삼십일번차.

본부로 거미줄 잡아주기 바람.

대연회 일정 잡혔다. 즉시 거미줄 잡아 주기 바람.

남겨진 윤희 엄마.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거리에 주저앉고 만다.

선우

저기 공중전화에 차 대.



13. 실내. 태운의 셋방 - 낮

단칸 방에 깔려진 이불 속에 곤히 자고 있는 태운.  
옆에서 벗은 몸의 여인이 눈이 말뚱말뚱한 채 누워있다.  
디지털알람이 4시를 가리키며 라디오가 켜진다.

‘70년 전 오늘, 1909년 10월 26일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일본 초대 조선 총감 이토오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입니다. 안의사는 거사 후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당당하게 체포되었지요’

전화가 온다. 여인 황급히 받는다.  
조용히 속삭이더니 옆의 남자를 깨워 바꿔준다.

태운

(전화에다) 예, 저예요. 네? 저 오늘 비번이에요.....  
(실망스럽게) 네. 네. 6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끊고) 아이, 오늘 비번인데, 지랄이야.

여인은 얼른 일어나 옷을 입는다.

여인

얼른 밥해줄게, 먹고 가.

벼개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태운. ↙

태운

미안. 내일은 정말 설 수 있을거야.

14. 연희동 비밀 요정.

마담이 재선 윗도리를 입혀주고는 바쁘게 현관 쪽으로 몰고 나간다.

마담

그거 잘 한다는 거, 그거 별거 아냐.....

나, 당신때때 한껏 올라 있다, 나, 지금 당신때때 숨 넘어 간다...죽는다.....그러면서 흐억! 하면서.....이렇게 파르르 떠는거... 응? 알지, 너두? 남자들이란 게 그러면 다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재선

언니, 나도 알만큼 알고, 까질만큼 까졌어, 그만해.

현관에 서서 다 보고 듣고 있는 선우.

마담

알았어.... 아, 그리고 너무 힘 쓰구, 오바하지 말고, 노인넌데....응?

그제서야 선우를 발견하고 민망하게 웃는 마담.

선우

차, 웃지마....정그러....

선우가 재선을 데리고 나간다.

## 15. 몽타쥬 씬

국기 하강식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변주에 맞춰 아래 장면들이 몽타쥬된다.

- 히틀러 유겐트 복장을 시첼이 중앙에 서서 경호대원들과 30경비단 병사들의 분열을 받는다. 떨떠름한 표정의 계인등 몇몇 장관들의 모습이 보인다.

- 별관 내실 계단을 오르는 효조. 침대 시트를 정성껏 간다.

-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치며 리허설을 하는 수봉. 무대 뒤에서 매니저와 피디가 언쟁을 한다.

- 달리는 차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시민들.

- 궁정동 안가로 들어오는 제규의 차. 직원들이 맞이한다.

## 16. 실내. 제규의 방 - 낮

이발용 하얀 천이 목을 두른 채 거울을 응시하고 있는 제규.

이발사가 조용히 기구를 챙긴다.

홍주는 그 옆 소파에서 타임지를 읽고 있다.

제규

(갑자기) 다메다! 고노마마자 젓다이니 다메다!

(안돼, 이런 식으로 절대 안돼)

벌떡 일어난 제규가 창가로 간다. 영문을 모르는 이발사와 홍주.

제규

(혼자말) 아냐....아냐.....지금 이발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냐....

홍주가 영문을 몰라하는 이발사를 몰고 나간다.

‘예 그럼 답에...’

하얀 가운 휘날리며 금고로 가 웰터 32구경을 꺼내든다.

그 때 하얀 가운을 발견하고 핵 치워 버린다.

## 17. 청와대 - 낮

총이 든 총집을 들고 시철을 쫓아가는 경호관 제송.

시철

됐다.

제송

규정 위반입니다. 차고 가십시오.

갑자기 서서 꼬나보는 시철. 갑자기 쪼인타를 간다.

시철

(다시 몇 발자국 가다가) 쫘 쪼그만 걸루 한 세트 마련해  
봐. 각하가 보고 뭐라 그러시더라구.

18. 실내. 제규 집무실 - 낮

소리

(무전기) 파나마 정문 통과합니다.

창문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제규.

정문 철재 문이 열리지만 그전에 차에서 내려 차를 보내고 걸어 들어오는  
계연.

제규

참모총장님이 오실 거다. 일단 김차장하고 저녁 드시게  
해. 각하 호출이라고.

홍주

(의아).....

제규

저쪽 금방 끝내고 올테니까.

홍주

네. 근데 저쪽이 금방 끝나겠습니까?

제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 박대령,  
너 나 어떻게 생각해?

홍주

(지체없이) 존경합니다.

제규

나 믿나?

홍주

네.

제규

(홍주에게 돌아서서).....자네 참 좋은 군인이야...  
자네 같은 사람은 야전에 있어야 되는데....

홍주는 뭔가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 챌 듯 말없이 인터폰을 든다.

## 19. 실외. 궁정동 앞길 - 낮

골목을 돌아 정문 초소로 오는 태운.  
초소의 기조 등과 인사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온다.

‘너 오늘 비번아냐?’ ‘나오래는데 어떡해?’  
‘빨리 준비해서 나와. 할아버지 오시나봐’

20. 실외. 궁정동 본관 마당 - PM 5:45

들어오는 계언을 반갑게 맞이하는 제규.  
표정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제규

나드리가 잦으시네, 피곤하실텐데...

계언

다 외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외로워서.

제규

어떻게 요즘 부쩍 더 그러시는 거 같애.

계언

그러게. 어디 참한 과부자리래도 있으면 좋으련만...

제규

그 어른, 거 야멸차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깊은 정은  
안주지?

계언

그지, 응?

별관 쪽으로 빠져 나가는 두 사람.

21. 실외. 궁정동 별관 마당 - PM 6:05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있는 계언과 제규.

계언

옛날에 김형욱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 톤을 바꿔서) 서울대에서 데모있었습니다,  
총장한테 전화 걸어 한번만 더 데모 일어나면 탱크로 밀  
어버리겠다고 통고했습니다, 이~래~.  
그럼 각하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규는 그저 썩은 미소를 지을 뿐.

계언

차실장 월권행위가 너무 심하다고 제가 보고서 하나 올렸  
어요. 중간에서 잘리지 말아야 될텐데....

제규

손나 나마누루이 호우호 데와?  
(그런 따뜻 미지근한 방법으로 되겠어요?)

계언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한다.

제규

아래와 다메테스...보꾸가 데워 쯤젠또.  
(쟤 안되겠어요. 내가 손을 봐야지.)



계언

그 낫 대위 출신 자식, 우리 장군들이 참어야지, 뭐.

별관 쪽으로 들어서는 정의의 차.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짹 깔린다.  
일어서는 두 사람.

22. 실내. 별관 만찬장 - 밤

효조가 세팅된 테이블 위에 음식 가져온 것들을 정성스럽게 놓는다.  
제송과 인영이 들어와 화장실과 방 점검을 마친다.  
효조는 인영과 눈인사를 나누지만 제송은 뻗뻗하다.  
들어오는 정의, 시철, 계언, 제규.

정의

어이, 남군 또 왔네.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효조.

23. 실외. 내자 호텔 앞 - 밤

선우의 차가 내자호텔 앞에 도착한다.  
윤전수 성욱이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는 재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선우.

선우

뭔 대학 연극 영화과라구?

재선

그냥 청강생이에요.

선우

(물끄러미 쳐다보며) .....

재선

(화장을 고치던 손을 멈추고) 왜요~~~?

선우

(한숨을 푹쉬며).....

재선

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쿨한 년이에요.

선우

뭐한 년?

재선

쿨한 년! 뒤가 깨끗한 년이라구요.

소리

(무전기) 할아버지 오셨다. 빨리 귀가 바람.

선우

10분 후에 귀가 예정이다.

재선이 배실배실 웃으면서 화장을 계속한다.

성육을 따라 수봉이 기타를 들고 차에 탄다.

재선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수봉은 슬쩍 고개만 숙이다 만다.

선우

가자, 늦었다.

#### 24. 실내. 만찬장 - 밤

효조가 조용히 음식물을 서브한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정의

카터 그 새끼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큰 일이야.

계언

땅콩농장 농장주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정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체대로 하는 나라 몇 나란 줄 알어?

북미에 미국, 캐나다하고.... 이쪽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중동엔 눈 씻고 봐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서유럽 몇 나라야.... 프랑스도 헌법 보면 아니고.... 우린 야당이래도 있잖아....

왜들 나한테 난리야, 도대체.

시철

그러게 말입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피아퐁 그 사람이  
내무장관에다, 육군대장, 국립은행 총장까지 다 하던데요.

계언

대만은 지금도 계엄중이에요.

정의

요는 핵무장인데, 그래야 양키놈들이 꺼벽 죽거덩.....  
파키스탄의 부토가 뭐라 그랬는지 알어?

다들 잠잠..

정의

‘풀을 뜯어먹고 살더라도 핵무기는 가져야겠다’ 그랬다고.  
이해가?

## 25. 선우의 달리는 차안. 밤

선우(무전기에)

(소리) 여자분 두 분 더 가요....  
음식 준비 별문데 없죠?....  
한 분만 자고 갈꺼고....

재선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깥을 살핀다. 청와대 주변의 삼엄한 경비.

수봉은 무심히 기타 튜닝을 한다.

이윽고 궁정동 골목으로 들어선다. 사복 사나이들이 움직인다.

태운

(차안을 살피며) 31호차, 별관으로. 플러스 냄비 두 짝!

차가 코너를 돌자 궁정동 안가 대문이 열린다. 사복 사나이들.

재선

(수봉에게) 우리보고 냄비 두 짝이래... 키키키.

모른 척하는 심수봉.

이리저리 쳐다보기 바쁜 재선.

26. 실내. 궁정동 별관 - 밤

차가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효조가 맞이한다.

뒤에 제송과 인영이 나온다.

선우는 인영에게 아는 체 하고 인영이 장난스럽게 웃는다.

제송이 두 여인을 데려가고 선우는 효조를 불러 세운다.

선우

안에 분위기 어때요?

효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선우

부장님은?

효조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다.

선우가 그런(?) 효조를 물끄러미 본다.

선우

당신 말 없는 거..... 여기서 일하긴 참 좋은 건데.....

아, 됐어요. 그냥 들어가 일 보세요.

선우가 돌아서서 담배를 꺼내 무는데 효조가 가지 않고 그냥 서 있다.

선우

(혼자말) 아이, 영감들.....

좀 사이 좋게나 들 지내든가.....제길.

효조

(낮은 저음) 과장님... 본관에 참모총장님 와 계십니다.

화들짝 놀라서 돌아서는 선우의 얼굴.

## 27. 실내. 만찬장 - 밤

제규

데모하는 것들 잡아다가 혼내주는 거 뭐 문제겠습니까?

다만 젊은 애들이 또 너무 패기들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게 걱정이죠.

정의

무슨 소리야. 우리 만주 군관학교 시절에는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냥 훈련병이라고 때리고, 조센징이라고 때리고, 한번은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맞았다고....  
진짜 흑독하게 맞았지. 하도 맞아서 입이 헐어 일주일 간 아무 것도 못 먹은 때도 있었어.  
다 맞구 크는거야

제규는 말이 없다.

정의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비행조사서만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 뭐하나?

제규

.....

효조가 들어 와 시철의 귀에 뭔가를 속삭인다.  
시철이 일어서서 나간다.

시철

(나가면서) 틀렸어요, 요즘 정보부는. 붙잡아다 때리구, 겁주고 그러라고 있는 게 정보분데.... 이걸 원...

28. 실내. 부속실 - 밤

문 입구에 서서 보고 있는 선우. 표정이 복잡해 보인다.  
제송이 내민 서약서에 싸인을 하는 두 여인.  
시철이 복도 쪽에서 나타난다. 선우를 쬐렷본다.  
시철이 들어오자 수봉이 다소곳이 인사를 한다.  
재선도 배시시 웃으며 일어난다.

인영

주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자들을 앞장 세우고 가다 말고 시철이 선우 쪽으로 돌아선다.

시철

야, 박과장. 너 일루 와봐.

똥하니 따라가는 선우의 복부에 혹을 날리는 시철.  
뒤돌아보는 재선을 끌고 가는 효조.

시철

너 이 새끼 업무 똑바로 처리해, 소문나지 않게!

몹시 굴욕적이지만 계속 똥한 척 하려는 선우의 모습이 안쓰럽다.  
시철이 발로 깔래다가 그냥 돌아서 간다.

시철

내 구두를 안 신고 있어서 참는 줄 알아, 짜샤.

선우

허! 진짜 개새끼네....



인영이 나와서 달랜다.

인영

됐어, 됐어, 신경 꺼.

선우

와 낫살이나 쳐 먹어서, 언제까지 이러구 사냐, 우리?

29. 실내. 만찬장 - 밤

시철

(귀속말) 각하, 오늘은 탤런트가 아닌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의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 그런거 신경 안 써’ 하는 투로.

시철

대학생입니다.

시철이 문 쪽의 효조에게 눈짓을 하자 만찬장으로 들어오는 두 여인.

정의

....어서 와요 수봉양, 수봉양은 내가 특별히 또 청했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재선이 녀살중계 인사를 한다.

재선

미스 신입니다.

정의

음, 신씨. 어디 신씨지?

재선

(녀살중계) 어머, 저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떡하죠?

계연

어찌기는...됐다, 이 가시네야!

각하 이해하십시오. 요즘 애들이 이렇습니다.

재선

(배시시) 이해해 주세요용!

시철

(티브이를 켜며) 뉴스 나올 시간입니다.

그러는 사이 제규가 슬그머니 일어나 방을 나온다.

방을 나와 복도 옆 화장실로 들어가는 제규를 바라보는 효조.

30. 실내. 화장실 - 밤

한쪽 다리는 완전히 바지를 뺀 채 변기에 앉아 있는 제규.  
갑자기 휴지도 사용하지 않고 바지를 입고 물을 내린다.

제규

제길, 되는 일 하나 없네.

31. 실내. 만찬장 - 밤

영감들 티브이를 시청하고 있다.  
삼교천 대통령 뉴스가 끝나자 김영삼 뉴스가 나온다.  
티브이를 끄는 시철.

시철

야당 놈들 사표들 던졌지만 국회의원 그만 두고 싶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쏘세요.

정의

삼교에 가보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드만.  
부산에서는 웬 식당뿐이 풀만인들이 난리치는거라구.

시철

정보부에서 영삼이랑 풀마니 몇만 확실히 조졌어도  
이런 일은 없죠..

제규

.....차실장은 좀 가만 있지?

계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자, 자 수봉양, 나 엔카 하나 들려줘.

(재선에게) 넌 잔이나 받아라.

정의

거 너무 독하지 않을까? 맥주 시켜주라?

재선

(쌍꺼) 아뇨. 저 원래 맥주 같은 건 싱겨워서 안 마셔요.

계연

(잔을 주며) 하이, 고거...

수봉이 노래를 시작한다.

재선은 정의가 주는 안주를 손으로 받으려 하지만 정의는 굳이 재선 입에 넣어준다.

시철이 못마땅하게 본다.

효조가 주전자에 위스키를 보충하고 나간다.

다시 나가는 제규(7:05)

### 32. 설외. 궁정동 마당 - 밤

바빠 가로 질러 가는 제규. 복잡한 표정. 효조가 보고 있다.

제규

정보부... 무서운 거...오늘 맛 좀 봐라... 짜식.

33. 실내. 집무실 - 밤

제규, 홍주를 데리고 집무실로 들어가서는 혼자 내실로 들어간다.

제규

참모총장 식사하고 계시지?

고개를 끄덕이는 홍주.

제규

박과장 좀 오라고 해. 지급으로

34. 실내. 집무실 내실 - 밤

탄창에 실탄을 하나 하나 박어 넣는 제규.

‘으어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뺨을 양손으로 마구 치는 제규.

제규

고로시 마스크!

35. 실외. 정원 - 밤

어느새 모여 있는 세 사람.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다.

제규

(조용히) 오늘 내가 해치운다.

침묵하는 두 사람. 그리고 홍주는 선우의 눈치를 살핀다.

제규

잘못되면 자네들이나 나나 다 죽는거야,  
어떻게들 생각하나?

묵묵부답인 두 사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침 듣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제규

방에서 내가 쏘면 니들은 경호원들을 처치해라.

선우

부장님, 오늘 경호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규

안돼. 미를 만큼 미웠어. 오늘이야. 똑똑한 놈 세 놈!  
셋만 데리고 날 지원하란 말이야.

선우

네. (귀에다 대고) 각하도 포함됩니까?

제규

포함? 그게 직격 목표물이야! 차지철이는 덤이구.

묵묵부답인 두사람.

제규

(비장 그 자체) 민주주의를 위해...

자결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

눈에 힘을 주는 두 사람.

제규가 간다.

선우

오늘 우리 인생, 쇼부 봐 버립시다. 네?

홍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리자 선우도 경비원 대기실로 간다.

선우

하긴 너나 나나 뭐 달리 뽀족한 수 있간디?

(손바닥을 짹짹 치며) 오케이! 가보자! 쿨하게.

### 36. 실내. 만찬장 - 밤

문 앞에 효조를 지나쳐 들어 와 앉는 제규. (pm 7:15)

수봉이 간드러진 목소리로 엔가를 부르고 있다.

원 샷으로 마시고 바로 정의에게 잔을 바치는 재선.

시철이 테이블 밑에서 발로 한대 킁다. 천천히 드리라고.

37. 실외. 주차장 - 밤

콘솔 박스에서 독일제 웰슨 9연발총을 챙기는 홍주,  
불안하게 담배를 짹짹 피워댄다

38. 실내. 경비실 - 밤

기조가 엠15 기관총과 탄창을 챙긴다  
태운이 등그레진다. 그렇지만 서로 말이 없다. 성욱이 낀다.

성욱

뭔 일이시래요?

기조

넌들 아냐? 까래니 까야지.

39. 실내. 선우 사무실 - 밤

전화를 하며 총을 챙기는 선우.

선우

애들 잘 있지? ..... 나 오늘 못 들어가.  
너 오늘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건 몰라도 되고,  
나 니 기뻐할 엄청 필요하다, 오늘. 끊어.



40. 실외. 경비실 앞 - 밤

총을 뒤쪽에 꽂으며 이층에서 내려오는 선우.  
마침 기조가 나와서 옷 속으로 총을 감춘다.

선우

(고개를 저으며) 안되겠다, 권총으로 바꿔.

다시 들어가는데

선우

성육이도 총 쏠 줄 아나?

기조

육군 중사출신인데요.

선우

같이 테꾸와. 무장 시켜서.

기조, 가다가 당황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 한다.

선우

어쭈구리, 천천히 침착하게 해.

41. 실내. 만찬장 - 밤

일어선 채로 울동과 함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를 부르는 재선.  
짜증스런 얼굴로 반주하는 수봉.  
박장대소하는 사람들. 제규도 비실비실 웃는다.

42. 실외. 마당 차 안 - 밤

식당 안에서 웃고 떠들면서 밥 먹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기조와 성욱이 잔뜩 쫓아 있다.  
홍주가 지켜보고 있다.

선우

일, 차를 식당 앞에 대고 대기한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지시라고 하고.  
이. 총소리가 들릴거다.  
즉시 내려서 식당 쪽 경호원을 제압해라.  
삼. 반항하면 썩라. 질문?

성욱

쏘라니요.....?

선우

죽여도 좋다는 말이다. 실제 상황이라구.

군기 딱 들은 기조와 달리 성욱은 얼뺄한 표정을 짓는다.

선우

(조용히) 내 니들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한데 벼락같이 기조와 성욱의 뺨을 후려 갈긴다.

선우

정신 차려, 안 그럼 다 죽는다.

군기 바짝 든 두 사람을 남겨두고 선우는 홍주와 함께 안 쪽으로 간다.

‘거짓말이야~’

#### 43. 실외. 별관 마당 - 밤

만찬장 입구에 서 있는 효조가 본다.

나란히 걷는 홍주와 선우.

선우

마주 앉아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바로 총을 뽑아서

두 사람을 제압하세요. 짧은 애 있죠, 제송이,

개를 조심해야 돼요,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이니까.

홍주는 말이 없다.

선우

어때요, 죽일 필요는 없겠지요?

홍주

(물끄러미 선우를 볼 뿐).....

선우

안에 경호처장..... 친구예요.....해병대 동인데...

홍주

.....경호원들인데 가만 있겠어요?

44. 실내. 별관 복도 - 밤

걸어오는 두 박.

대기실 앞에서 선우가 갑자기 돌아선다.

선우

박대령, 아무래도..... 여긴 내가 할게.

식당 쪽 애들 지휘해 주세요.

홍주

....?

선우

안에 친구, 애들이랑 애들 엄마끼리도

친하게 지내거든.....

물끄러미 보다가 돌아서는 홍주.

심호흡을 하며 권총을 한번 만지고 들어가는 선우.

선우

(홍주 쪽을 돌아보며 혼잣말)

사람이..... 무슨 대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45. 실외. 식당 앞 차안 - 밤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기조와 성욱.

식당에서 나온 경호원 김용섭이 의심스럽게 차 안을 살핀다.

침을 꿀꺽이며 긴장하는 기조와 성욱.

김용섭이 그냥 들어간다.

효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성욱

오늘 우리 좇되는 거 같다.

기조는 못 들은 척 실탄을 장전한다.

성욱

야, 안되겠다. 그냥 토끼자!

기조

미친 새끼....한 몫 잡을 거래잖아, 과장님이!....

성욱

한 몫은... 얼어죽을.... 경비원 주제에...

안면몰수하고 토끼는 게 최고야 이럴 땐..

기조

미친 새끼, 나중에 혼날려구.

와중에 홍주가 나타나 차에 탄다. 아무 소리 못하는 두 사람.

46. 실내. 부속실 - 밤

땅콩을 까는 제송의 손.

인영과 제송이 다과와 차를 마시며 미군방송 TV를 보고 있다.

효조가 다과를 더 서빙한다.

선우

부장님 좀 뵈 수 있을까?

뭔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는 효조.

47. 실내. 만찬장 - 밤

시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나그네 설움,

효조가 들어 와 제규에게 뭔가 얘기를 하자 제규가 나간다.(7:40)

정의를 수봉에게 술을 권한다.

수봉

(짜악 웃으며) 전 노래 좀 더 하고 마시면 안될까요?

씩 웃으며 제 잔을 내미는 재선.  
노래 부르던 시철이 눈치를 준다.  
정의가 웃으며 잔을 돌린다.

48. 실내. 복도 - 밤

셋이 둘러서서 각자 총을 격발 준비 시킨다. 철커덕 철커덕!

제규

요시이! 내가 쏘면 바로 행동개시야!

눈빛으로 대답하는 두 사람.

제규

반카이!

제규가 돌아가면서 낮은 기성을 지르며 자기 뺨을 막 친다.  
홍주도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혼자 남아 보고 있던 선우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흉내를 내 본다.  
'으으...' '철썩, 철썩'  
선우가 뒤를 살피면 저 쪽에 서있던 효조가 짐짓 시선을 돌린다.

49. 실내. 만찬장 - 밤

노래는 끝나있다.

시철

걱정마십시오, 각하! 캄보디아에서는요,  
백만 명이나 죽었어요. 우리두요, 한 만 명만....  
아니야, 천 명만 탱크로 갈아 버려도 충분해요.  
짜식들, 쥐죽은 듯이 엎어져 있을 것들이....

들어오는 제규.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다.

제규

홍, 만 명?

계언

자자, 진정하시고. (여자들 쪽으로)  
언니들, 언니들은 이런 승한 얘기 못들은 거야, 알지?

제규

..... 만 명은 관두구 짜식아, 너 하나 죽으면 돼!

짱! 시철에게 한방 먹이는 제규.

얼떨결에 막은 시철의 손에서 두 개의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손에서는 피가 솟는다.

정의

뭐야, 들!



제규, 피식 웃으며 정의에게 총을 갈긴다. 짱!  
옆에 있던 수봉이 일결에 기타를 던지고 뒤로 물러 앉는다.  
술잔을 든 채 영문을 모르고 배시시거리다 일어 붙는 재선.  
그 위로 정의가 스르륵 쓰러진다. 가슴에 피가 번진다.  
시철이 다시 자신을 향한 제규의 총부리를 피해 달아나 보려는데....

### 시철

김부장님, 왜 그래요, 진정해요.

총이 발사가 안된다. ‘에잇 씨발’ 하면서 총으로 까려는 동작에,  
화장실로 도망가는 시철.  
제규가 문 밖으로 뛰어 나온다. 불이 꺼진다

## 50. 실내. 부속실 - 밤

조용한 방안. 미군방송 소리만 나지막히 들린다.  
땅콩을 까먹는 제송의 손. 주머니 속 총을 만지는 선우의 손.  
사람 좋은 얼굴로 티브이에 열중하고 있는 인영.  
뽕! 뽕!  
순간 인영과 제송은 ‘어!’ 하며 본능적으로 손이 총으로 간다.  
선우는 바로 총을 빼 제송을 겨눈다.

### 선우

뽕뽕마. 움직이면 쏜다.... 뽕뽕마..... 자...

### 인영

야, 박선호.....

불이 꺼진다.

51. 실외. 식당 앞 정원 - 밤

차 안에 초조하게 앉아 있는 세 사람.

홍주

총소리 나면 바루 튀어 나가야 돼, 알았지?

재네 총 뽑고 나면 우리가 당해...

탕탕 총소리가 들린다.

주방으로 달려가 난사하는 홍주, 기조, 성욱.

맹렬하게 쏘아 제기는 홍주와 기조.

성욱은 대가리를 파묻은 채 아무렇게나 난사하고 있다.

홍주

일어서지마! 일어서면 죽는다!

총 맞고 쓰러지는 김용태 박성범 김용섭 김용남 등.

쓰러지면서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박성범.

구석에 짱 박히는 효조. 총소리가 계속된다.

불이 꺼진다.

52. 실내. 부속실 - 밤

바깥의 총소리가 계속 된다.

선우

(총을 겨누며) 자, 진정해, 천천히.....

인영

(허탈).... 이게 뭐야... 너 이럴 수 있어?

선우

인영아, 우리, 같이 살자, 응? 다 끝났어

인영과 제송의 시선이 마주친다. 제송이 일어서며 총을 뺀다.  
주저 없이 선우의 총이 불을 뿜는다. 벌렁 나가 떨어지는 제송.  
동시에 인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선우에게 달려든다.

선우

안돼, 인영아, 쏜다.

선우는 총구를 정에게 겨누는 채 주춤거리며 뒷걸음친다.

선우

쏜다!

선우의 발이 문지방에 걸린다.

몸을 뒤뚱거리던 선우는 바로 코 앞까지 쫓아와 총을 뽑는 인영에게  
두 발을 쏜다. 인영은 선우를 덮치듯이 앞으로 고꾸라진다.

53. 실내. 마당 - 밤

총을 든 제규가 허겁지겁 뛰쳐나온다.

제규

불 켜!

54. 실내. 부속실 - 밤

선우, 겁먹은 태도로 제송 손의 총을 발로 차는데  
제규의 '불 켜!' 하는 소리가 들린다.  
쓰러진 인영의 총을 발로 툭 차고는 돌아 나간다.  
인영은 계속 피를 토하며 킁킁거리다 점점 잤아든다.

선우

(흥폭하게) 나 과장이다, 어떤 새끼가 불 켜?

55. 실내. 주방 - 밤

구석에 쳐 박혀 있는 효조. 보일러실 문으로 기어간다.

효조

강형, 두꺼비집 내렸어?

어병한 보일러 강씨가 놀란 눈을 껌벅인다.

강씨

난 합선인 줄 알았어.

효조

올려.

56. 실외. 마당 - 밤

홍주가 제규 앞으로 나선다.

제규

총 내놔.

손전등을 들고 나타난 선우가 성욱의 총을 건넨다.

제규가 쳐다본다.

선우

깨끗합니다.

제규

요시이!

불이 들어온다.

57. 실내. 만찬장 화장실 - 밤

안 쪽에서 피 흘리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시철.  
그는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원래 자리에 막 붙여보다 윗주머니에  
고이 모셔둔다.

58. 실내. 만찬장 - 밤

재선이 거침없이 윗도리를 벗어 정의의 등에 뚫린 구멍에 댄다.  
수봉은 정의를 부축하고 있다.

수봉

괜찮으세요?

정의

어, 수봉이..... 괜찮니, 나? 피 많이 나나?

계언이 비실비실 일어난다.

재선

뭐 하세요,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계언

그래, 니들 용타. 잠깐만 기다려. 내, 금방 올게.

계언이 내뺨다.

그 때 화장실 문이 빠끔히 열리며 시철이 나타난다.

시철

언니야! 김부장 없어?

수봉

나갔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 보세요.

시철

응. 그래, 걱정마. 야 경호원! 경호원!

재선

아이, 떠들지 마세웁!

슬금슬금 바깥쪽 눈치를 살피며 나오는 시철.

시철

(작은 소리로) 응. 야, 경호원! 어디들 있나?

불쑥 나타나는 제규와 마주치는 시철.

시철

형님.... 진정하세요. 왜 이래요.

제규

니 배때기엔 철판 깔았니? 왜 까불어?

시철

형님.....

빵!

나자빠진 시철을 넘어 정의와 두 여인에게 다가가는 제규.

제규

병신새끼. 경호실장 주제에 경호도 못하고 설치기는...

굳어서 꼼짝 못하는 두 여인.

정의의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는 제규.

‘첼커덕’ 총알이 없다. 입구 쪽에 있던 선우가 자신의 총을 건넨다.

다시 수봉의 무릎에 누워 있는 정의 머리칼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제규.

정의가 쿠르륵 대며 피를 토한다.

제규가 총을 뒷통수에 갖다 댄다.

제규

아가들은 비켜라, 들.

여자 둘이 물러나는 걸 효조가 밖으로 안내한다.

정의

수봉이, 어디가? 수봉이....



제규

각하.

정의

어.... 제규씨..... 김장군, 왜 그래.... 또 쓸려구?

제규

다까키 마사오! 다레테모 신다라 쿠삿다 니오이노 스루  
후네꾸다!  
(누구래도 죽으면 그냥 썩은 내 피우는 쓰레기인 거예요,  
네?)

정의

나 벌써 한 방 먹었다 아니가..... 김 장군.

제규, '으어어!' 기성을 지르면서 팡!  
피가 튀고 정의 짙단처럼 폭 쓰러진다.  
입구에서 보고 있는 선우와 홍주.  
정적.

제규

고로스또 있다라 고로스또!  
(죽인다면 죽인다곳!)

59. 실내. 본관 식당 - 밤

냅킨을 목에 맨 송화가 품위 있게 맛있게 음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다.

김차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김차장

파출소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송화

(먹으며) 내가 불 적에 오발은 아닙니다.

김차장

.....

송화

(계속 먹으며) 십수발이 연속적으로 오발이 될 순 없잖아  
요. 권총 소리던데.

김차장

.....곧 보고가 오겠지요.

송화

(계속 먹으며) 각하도 들으셨을텐데.... 자식들이 참.

제규가 뛰어 들어 온다.

제규

정총장!

결눈으로 안쪽을 보면서 주전자 채로 물을 들이키는 제규.  
황당해하는 웨이터. 안쪽의 송화와 김차장도 황당하다.

포카 페이스로 계규 뒤에 서있는 홍주.

계규

정총장, 큰일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60. 실내. 별관 만찬장 - 밤

경비원들이 계언의 지시를 받고 우르르 들어온다.

‘각하를 업어!’ ‘조심해서...’

계언이 총들고 설치는 기조의 총을 뺏는다. ‘각하 계신데...무엄하게스리’

기조 등이 선우 눈치를 살핀다. 어찌죠? 선우는 먼저 돌아 나온다.

인간들이 쓰러져 있는 시철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

효조가 문득 시철이 숨쉬고 있음을 발견한다.

효조

실장님 일어나시지요.

시철

남군, 어떡해? 나 못 일어날 거 같애.

시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잃는다.

냉정하게 돌아 나오는 효조.

61. 실외. 본관 마당 - 밤

마당을 가로 질러 본관 쪽으로 뛰어가는 선우.  
저 앞에서 홍주가 제규 등을 태우고 차를 출발시킨다.  
선우가 손짓을 하며 다급하게 쫓아가지만 차는 대문 밖으로 사라진다.

선우

(헐레벌떡) 아이 씨.... 안에 누구 누구 탔나?

태운

(긴장) 부장님, 박대령님하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요.

선우가 다시 돌아서 별관 쪽으로 간다.

선우

아, 씨바 뭘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왜 이렇게 성급해들? 뭐 죄졌다.....

62. 실외. 별관 마당 - 밤

다시 별관 쪽으로 오는 선우.  
형준이 피를 흠뻑 뒤집어 쓰면서 계언의 지휘하에 정의를 업어 차에 싣는다.  
'빨리, 여기 부딪치지 않게...' '차 대 빨리 병원으로 가자!'  
선우가 성욱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는 경비실 쪽으로 손짓을 하면  
대문이 열린다. 빠져 나가는 차.  
마당 한가운데 홀로 남은 선우.

선우

와우! 이 무슨 미친 짓이여, 시방? 돌아버리겠네...

63. 실외. 달리는 제규의 차 - 밤

앞자리에는 운전수와 홍주, 뒷자리에는 제규와 송화.

송화

(짜증)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하세욱!

제규는 송화의 오른손을 꼭 잡는다.

자신의 오른쪽 엄지를 세웠다가 밑으로 돌린다.

제규

(앞 눈치를 보며) 이분이.....

(엄지액션) 이분이.... 큰 일 났습니다.

송화

네? 아니, 어떡하다가?

제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지액션) 이 분이.... 적이 알면 큰 일인데... 이거.

송화

어찌다가요?

제규

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홍주가 뒤를 언뜻 살핀다.

송화

(갑자기) 아니 이 차가 지금 얼루 가는 겁니까?

제규

남산이요.

송화

정보부는 가서 뭐하세요? 육본으로 갑시다.

제규는 앞 홍주와 눈을 맞추며 ‘어찌지?’ 한다.

제규

(손을 입에 대고 ‘하이’ 하더니 앞 쪽 홍주에게)

야, 나 껌하나 주라.

제규 껌을 받아들고 까서 씹으며 송화에게도 하나 건넨다.

껌을 받아들고 멀뚱거리는 송화.

#### 64. 실외. 육본 정문 초소 - 밤

굳게 닫혀 있는 정문 앞에 제규의 차가 서 있다.

초병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차로 다가온다.

초병1

(차 돌리라는 손짓) 민간인은 출입금지입니다.

송화

야, 나 니들 총장이야. 문 열어.

초병

네?

그 때쯤 제규와 홍주가 차에서 내린다.

홍주는 뒷 트렁크에서 양복 윗도리 꺼내 제규에게 준다.

송화

나 육군 참모 총장이야, 문 열어.

뒤에서 초병2가 외친다.

‘뭐야, 빨리 보내.’

초병1

참모총장 이래는데?

초병2

쫓까는 소리하지 말고 가라 그래.

송화가 내린다.

송화

야, 가서 당직 장교 오라 그래.

초병1

당직 장교 오라는데?

송화

니들 나중에 혼나지 말고 빨리 가서 당직 장교 오라 그래.

‘구두!’ 제규는 신발도 신지 않고 있고, 양말 뒷 굽치엔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홍주가 주저치 않고 신발을 벗어 대령한다.

송화

니들 나중에 정말 죽는다?

송화 옆에 딱하니 서는 제규.

제규

달래서 얘기하세요, 얘기들인데....

(혼자말) 신발이 이렇게 커?

송화

아이, 내 차로 왔어야 되는건데....

양말 바람이 된 홍주는 운전석에 있는 운전사 신발을 뺏어 신는다.



65. 실내. 국군서울지구병원 - 밤

얼굴이 피 묻은 수건으로 가려진 정의의 시체.  
당직 장교들이 시들하게 응급소생술을 한다.  
심장을 마사지하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는다.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계언의 재촉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티가 역력하다.  
마침 들어온 장교가 따진다.

군의원1

여긴 각하 전용병상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계언

(다급) 나, 각하 비서실장 김계원이야,  
책임질테니 빨리 환자부터 봐.

계언

이분은.... 이분은 꼭 살려야 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서 성욱과 형준이 뺨뺨히 지켜보고 있다.  
군의원끼리 눈을 맞추더니 동작을 그만한다.

군의원2

.....끝났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절명하셨습니다.....  
체온으로 보면 한 오 분 전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쿵썩쿵썩 우는 김계언.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성욱과 형준 그리고 군의원들.

계언

(울면서) 야 니들 여기서 보안유지 하면서  
좀 지키고 있어.....영영 아이씨 이 일은 어떡하냐....  
당신들은 이 사람들 지시 받으면서 보안유지 하세요...  
영영....난 청와대 좀 가 봐야 되니까...영영...

66. 실내. 육본 병커 상황실 - PM 8:05

송화를 졸졸 따라가는 제규와 홍주.  
사복으로 나타난 총장 모습에 당황한 근무자들.  
꺾어 신은 구두를 신고도 여전히 능름한 홍주.

송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국방장관 합참의장한테 연락해. 바로.....  
참모총장들 하고, 해군 공군.....또...연합사 부사령관,  
1.3군 사령관.....에 또....수도군단장.....빨리.

상황실장이 당황해서 수첩에 적고 있다.

상황실장

네.

상황실장 눈짓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전화를 때리기 시작한다.  
송화가 전화 하나를 받는다.

송화

참모 총장입니다, 장관님.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빼 원 병커로 좀 나오시죠.....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건네 준 다른 전화를 받는다.

송화

(전화를 건네 받아) 즉시 작전을 중지하고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잘 들어요. 정규전에 대비하십시오.....  
그렇소 이급 비상사태요.....건 차차 알려 주겠소.

제규

총리랑 다른 장관들도 빨리 불러 모읍시다, 응?  
국무회의를 열자고, 여기서.

67. 실내. 궁정동 부속실 - 밤

선우가 죽어 쓰러져 있는 제송과 인영을 본다.  
손에 걸려 있는 권총을 발로 밀어낸다.

선우

인영아, 인영아.... 내가 임마 같이 살겠잖아.....  
하긴 할아버지 죽었는데 너 혼자 살기는.....  
참 미치겠네....

68. 실내. 만찬장 - 밤

방 전체가 피투성이다.  
입구에 사각 탁자와 함께 쓰러져있는 시철이 보인다.  
재떨이에서 아직도 타고 있는 담배 꽂초를 짓이기는 선우.

선우

(제규 말투를 흉내내며)  
니 배때기에는 철판 깔았니, 응? 아니잖아.  
근데 왜 까불어, 응?

시철이 내는 소리에 흠칫하는 선우.

69. 실외. 마당 - 밤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마당에 서 있는 선우.  
기조와 태운이 헐레벌떡 뛰어 온다.

선우

우리 소음기 있는 총은 없나?

기조

.....없습다.

70. 실내. 별실 - 밤

심난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수봉.

재선은 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발견해 마신다.

재선

언니, 언니 이게 모아, 도대체, 응?

수봉

난 이것들이 무슨 쇼하는 줄 알았어.....

재선

그지, 쇼지? 쇼야!

수봉이 옷에 묻은 피를 보인다.

재선

(풀이 죽어)..... 죽었을까?

수봉

....뒤통수에다 썼는데....

재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다 봤는데, 살려 둘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냐, 우리?

그 때 총소리가 진동한다. '깡!'

경악하는 두 여인.

71. 실내. 부속실 - 밤

태운이 거총자세를 푼다.

태운

(괴로와한다)... 못 쏘겠어요.

선우

(조용히) 야이 자샤.... 안중근 알아? 안중근?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야. 테러리스트.

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살해하고 재판정에 한  
말 알아? 응? 한 번 테러리스트는 영원한 테러리스트다.

응? 영원한 테러리스트! 그렇게 말하고 안중근은

웃으면서 사형대에 섰어. 꺾꺾 웃으면서 죽어갔다구.

이게 인간이란 것이야. 사나이. 응? 사나이! 씨.

망설이는 태운.

선우는 기조에게 눈짓을 하고 마당으로 나온다.

어둠 한 칸에 효조가 있다.

태운

이거 씨도 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기조

야 안중근은 산 이토오도 쏘는 판인데 저건 그냥

죽은 고기에 콩알 하나씩 주는 건데 어때?

태운이 다시 총을 겨눈다.

태운

..... 근데 저 사람들 진짜 죽었어요?

기조

야, 우리가 이려고 있는데, 살았으면 저렇게  
그냥 자빠져 있겠냐?

태운이 방아쇠를 당긴다. 쿵! 쿵!  
마당에 서서 총소리를 듣고 서있는 선우.

72. 실내. 복도 - 밤

문밖 복도 쪽에서 시체를 보고 있던 기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걸어서 만찬장 쪽으로 가는 기조와 태운.

태운

기주씨.... 총 맞아 본 적이 있어요?

기조

(풀이 죽었다) 아니..... 너는?

고개를 끄덕이는 태운.

문 입구에서 시철의 시체가 보인다.

기조

그렇게 부장님을 구박하더니, 이토오처럼 총 맞잖아?

짱. 시철의 몸이 들썩한다.

돌아 나오는 기조와 태운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

기조

어디, 월남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태운.

기조

어떻디? 많이 아프디?

쓰게 웃는 태운.

기조

어디 맞었는데?

나오다 말고 엉뚱하게도 태원이 윗도리를 건어서 옆구리의  
총탄 상처를 보여준다.

선우

(바깥에서) 야, 니들 정말 주접 계속 깔래?



73. 실내. 주방 - 밤

여기저기 시체들이 누워 있다. 다가가는 태운.  
총을 손에 들고 있는 경호원 김용섭에게 한방 쿵.  
숨을 쉬고 있는 박상범에게 총을 겨누며 갈등한다.  
김용섭 옆에 누워있던 김용남이 '꿈' 한다.  
놀란 태운이 김용남 쪽으로 총을 겨눈다.

김용남

태원아, 나 쏘지마.

태운

어, 김형. 내가 왜 형을 왜 쏘. 일어나.

김용남

한 방 먹었어. 어찌지?

태운

근데 누가 이랬어요?

김용남

몰라... 잉.... 나 쏘면 안돼, 태원아.....

태운이 다시 신음하는 박상범에게 총을 겨누려다 그냥 바깥쪽으로 나간다.  
손 쪽에 놓여진 총만 슬쩍 찬다. 태운은 용남을 부축해 나온다.

김용남

태원아,

태운

예.

김용남

간첩 아니지?

태운

..... 아니에요.

김용남

테모대도 아니지?

태운

..... 아니에요.

김용남

..... 그럼 누가 약주를 많이 드신거나?

태운

... 형 빨리 나오기나 해요. (안쪽에다)

우리 식구는 다 나와욧! 다 끝났어.

74. 실내. 보일러실 - 밤

컴컴한 속에서 문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강씨.

강씨

절대로 안 나간다 이놈들아. 송악한 놈들.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개길테니까... 에이, 송악한 놈들.....

75. 실내. 육본 회의실 - 밤

긴급 소집된 장관들과 몇몇 장군들.

- 계엄령을 선포하자니 쿠데타가 발생했단 건지, 각하가 암살당했다는 건지,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제규) 뭐, 대충 국내 치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마사태도 진정되고 데모도 없는데 무슨 치안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이라니, 참 나...

-(제규) 소련에서 브레즈네프가 죽은 걸 일주일이나 비밀에 부쳤어요. 전 세계가 감쪽같이 몰랐소. 이틀! 딱 48시간!이면 돼요. 그래, 겨우 이틀도 보안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소련 얘기가 왜 나오니까? 공산당 잡는 정보부장이?

-미국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하여튼 개네한테는 빨리 이실직고를 해야잖겠어?

-(제규) 미국 애들은 걱정 말아요. 개네들은 각하를 원래 안 좋아했으니까 별 불만 없을 거요.

-건 또 뭘 소리요? 미국이랑 미리 교감이 있었다는 거요?

-(제규) 야 물 좀 가져와. 주전자 채로.

-이북 애들이 이일을 알면 어떡하나.....

-차,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아니 도대체 국민들에겐 뭐라고 하지..... 서거? 치안문제? 미치겠네....

-아니 각하가 죽었을 때 누가 권력을 승계하는지 헌법에 나와 있지 않네?

-여보, 그게 왜 헌법에 써있어? 육법전서에 써있지.

그 와중에 홍주의 컷속말을 듣고 빠져 나오는 제규.

76. 실내. 육본 복도 - 밤

제규와 미리 와 있던 몇몇 각료들, 송화 등이 최규하 등을 맞이한다.

제규와 눈을 마주치고는 짙끔하는 계언. 그는 규하를 수행했다.

77. 실내. 육본 한적한 복도 - 밤

홍주가 위압감을 주며 밀담을 나누는 두 사람을 지켜준다.

제규

누구 누구한테 얘기했소?

계언

(쭈뼛거리며) 총리한테는 말씀드렸지.

제규

뭐라고 얘기했소?

계언

(말을 바꾼다) 이 사람아, 근데 어떻게 각하까지 그랬어!

제규

(거룩하게) 혁명은 칵테일 파티가 아니오.

피가 튀는 쟁투란 말이오.

계언이 멍한 표정으로 제규와 홍주의 눈치를 살핀다.

제규

... 허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시다. 대세는 기울었으니  
까... 갑시다. 국무회의인지 주접인지 한대니까.

78. 실내. 서울지구병원 병원장실 - 밤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김병주 준장.

당직 장교들이 뒤따르며 브리핑한다.

김병주

(묵묵히 듣다가) 그게 이 밤중에 나까지 부를 일이냐?

장교

.....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진찰실 창문 앞에 서서 안쪽을 보면 성욱, 형준이 정의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김병주

저 사람들은 뭐야?

장교

비서실 사람들이라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시체도 못 보게 하고....

김병주가 옷걸이 쪽을 가리키자, 장교가 준장 계급장이 달린 점퍼를 김병주에게 입혀 준다.

79. 실내. 병실 - 밤

조용한 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침대.  
정의의 시체가 시트에 덮여 있다.  
형준이 침대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성욱은 구석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우리 이젠 그냥 돌아가면 안될까?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 줘.....  
여기선 아무도 몰라...'  
문을 열고 당직 장교를 데리고 들어서는 김병주.

성욱

(권총을 보이며)... 에비, 에비 어디 가세요.

김병주

(권총을 보고도) 뭐?

형준

저, 누구신지?

장교

병원장 김병주 준장님이십니다.

약간 기죽는 두 사람.

김병주

.... 그러는 당신들은 누구요?

성욱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김병주

비서실? 비서실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을 말하는 건가?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각하 주치의도 몰라 봐?

김병주가 두 사람을 무시하고 침대로 가 시트를 확 들춘다.

성욱과 형준이 얼른 뛰어와 제지한다.

김병주

어디를 맞았는지 알아야 진단서를 띄고 진단서를 띄어야  
사망처리를 할 거 아뇨. 비키쇼.

비켜나서도 정의의 얼굴 쪽을 가리는 두 사람.

김병주가 '이것 봐라' 하는 투로 잠시 보다가 시체를 살핀다.

김병주

누가 이랬냐?

성욱

말 못합니다.

김병주

말 못해? 그럼 알긴 안다는 얘기네.

성욱

아이,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김병주

내가 맞춰 볼까?

성욱

....

김병주

성미 급한 사람.... 그 사람이 그랬지? 그지?



성욱

.... 헤헤헤

김병주

차실장이지, 그지?

성욱

..... 헤헤헤

김병주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누군가 브이아이피긴 한데.....

성욱

에이, 장군님 왜 이러세요?

김병주

이복에선 온 사람이나? 그지, 맞지?

성욱

헤헤헤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부어 있었고 입을 짝 벌리고 있어서

각하 얼굴을 구별할 수 없다.

와이셔츠를 올리고 검안하다가 복부의 반점을 보고 표정이 바뀌는 김병주.

성욱이 획 시트로 시체를 덮는다.

80. 실내. 국방부 회의실 - 밤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

규하

그렇다면 각하가 정말로 서거하셨는지 확인부터  
하고 봅시다.

제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규하

이거 보세요, 정보부장. 확실한 정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마당에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걸 뭘  
믿으라는 거요? 난 내 눈으로 각하 시신을 확인해야겠소.  
확실한 정보 좋아하네. 갑시다, 들.

처음으로 말을 떤 최규하의 진노에 모두들 잠잠하다.

81. 실내. 육본 복도 - 밤

장관들 보좌관들 장교들이 엮혀서 복잡하다.

계언이 눈치를 보며 송화, 노재현 국방장관을 끌고 방으로 들어간다.

홍주가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주시한다. 계언도 본다.

82. 실내. 총장실 - 밤

계언, 재현, 송화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재현

... 밥 먹다 말고 김재규가 느닷없이 차실장이랑 각하를  
권총으로 쏘았다?

송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계언

바로 옆에서 눈알을 부라리고 있잖아요.... 총도 차고...

송화

바로 코 앞에서 진짜 본 거 맞죠?

계언

(끄덕이며) 근데 방금 전에 김부장 경호원  
우리 여기 들어 온 거 감시하던데 괜찮을까요?

말없이 각자 눈치를 보는 세 사람.

송화

(보좌관에게) 어이 손대위, 그 총에 실탄 있지?

머뭇거리는 보좌관.

송화

이 자식이 지금.... 2급 비상령인거 몰라.

화들짝 뛰어 나가려는 보좌관.

송화

(신경질) 야, 야! 넌 나 지키고 딴 애 보내야지!

83. 실내. 회의실 - 밤

제규는 담요를 덮은 채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고

홍주는 전화 다이얼을 돌리고 있다.

홍주

김실장님 걱정인데, 안 따라 가셔도 되겠습니까?

제규

(쳐다본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거야.

그깟 양복 입은 늙은이들을 왜 쫓아다녀?

여기 그냥 여기 육본만 장악하고 있으면 돼.

홍주

(전화에다) 박과장, 나요 박대령....

(속삭인다) 거 할아버지 말이야, 병원으로 옮겼나?.....

응 삼청동에 있는 거..... (제규에게 끄덕인다)

아... 여기? 여기는 부장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전화 끊고) 병원은 우리 애들이 보안 유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규

이젠 있는대로 다 까고 가는 거야....

보안유지는 무슨 얼어죽을....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있는 제규를 보는 홍주.

제규

(눈 감은 채) 동기 중에 자네가 젤 먼저 대령 달은 거지?

홍주

네.

제규

참모 총장까지 할 수 있는 군인야, 자네는. 난 그렇게 봐.

묵묵히 있는 홍주.

제규

그렇다면 야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참....

84. 실내. 궁정동 집무실 - 밤

전화를 끊는 선우에게 텔렉스 쪼가리 하나가 쥐여진다.

선우

육본 완전 장악이라..... 이거 또 모야?  
전군 이급 비상령..... 할아버지가 그 지경이 됐으니  
비상은 비상이지, 비상인데.....

그때 인터폰이 울린다.

소리

청와대쪽에서 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우

전원 무장에서 잠복 대기 중이지? 그리고 절대 문 열어  
주지마. 개네들 할아버지 여기 오신 거 몰라. 시치미 떼.

85. 실외. 궁정동 대문 - 밤

일상적인 경비 말고도 숨어서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중정 경비원들.  
선우가 경비실로 다가간다. 일촉즉발의 위기감.  
효조가 청와대 애들을 막아내고 있다.  
'우리도 지금 비상 바짝 걸고 조사 중이라니까...'  
'당신들이 여길 왜 들어와?'

86. 실외. 궁정동 별실 - 밤

약간 취한 재선과 수봉이 해롱거린다.  
맥주병이 수북히 쌓여있다.

수봉이 위스키를 잔에 따른다.

수봉

일. 저 머리 나쁜 인간들이 그냥 까먹었다.

재선

이. 못 볼 걸 봤으니 계속 잡아두고 식모로 쓴다.

수봉

삼. 쥐도 새도 모르게 이복으로 보내낸다.

재선

사..... 기냥 죽여낸다....

수봉이 '일번'을 외치며 위스키 잔을 입에 물고 고개를 제킨다

재선도 킬킬거리며 고개를 제킨다.

그때 복도에서 노크소리. '노크는 무슨...'하면 문이 열린다.

선우 등이 잔을 입에 물고 병쩐 두 여인을 바라본다.

선우

와우, 대단들 하신데? 응! 배짱들 좋으셔. 멋있어!

87. 실내. 국방부 복도 - 밤

장교1, 2가 어느 문 안쪽에 귀를 기울인다.

장교1이 들어간다.

88. 실내. 그 내부 - 밤

장교1

총장님이 찾으십니다.

졸다가 벌떡 일어나는 제규. '으허!'

홍주가 떡하니 지키고 있다.

89. 실내. 복도 - 밤

저 멀리 코너를 돌아오는 제규와 장교1,2, 그리고 홍주.

90. 실내. 총장 접견실 - 밤

'이 새끼야! 대한민국 육본에서 실탄을 못 구한단 말이야!' 를

운운하면서 어수선하게 체포준비를 하고 있는 장교4,5,6,7.

장교3이 뛰어 들어온다.

장교3

읍니다!

후다닥 안정을 찾는 사무실.

접견실 앞에서 장교1은 제규만 안으로 들여보낸다.

문이 닫힌다.



제규

총장님은?

장교4

비서실장입니다. 병커에 계십니다, 가지죠.

제규가 다시 몸을 돌리자 장교2가 길을 막는다.

장교2

이쪽으로 가지죠. 브아이피용입니다.

따라가는 제규. '가자.'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제규

어, 박대령도 같이 가야하는데?

장교4

네. (부하에게) 복도에 박대령 모시고 뒤따라 와.

제규를 데리고 나가는 장교1. 뒤를 장교2와 장교4가 따른다.

91. 실내. 뒤쪽 현관 - 밤

층계를 내려오는 네 사람. 군데군데 부동자세로 서 있는 헌병들. 12:00  
현관 차 앞에서 제규가 문득 선다.

제규

박대령 어딴나? 왜 안와.

장교4가 장교2에게 덮치자는 눈짓을 보이지만 장교2가 말린다.

장교2

모시러 갔으니까 금방 올겁니다.

장교4

가시죠.

제규

오면 같이 가자.

장교2

차에 타서 기다리시죠.

장교2가 제규를 감싸듯 차 속으로 밀어 넣는다

장교2

무장해제 하겠습니까.

제규

무슨 짓들이야! 왜이래!

장교2가 제규의 고개를 쳐 박는다. 킁킁대는 제규.  
무장해제를 하고 창 밖의 장교4에게 무기를 넘긴다.

장교1

압송해.

제규

(고개를 쳐박힌 채로)

야, 세상이 달라졌어. 각하는 죽었다고.

장교2

말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위협하십니다.

제규

(깡깡대며) 야, 인제 세상 좋아질꺼야, 알어?

장교2

(무심히) 아, 그렇습니까?

제규

허, 이 새끼 내 말 안 믿네....

어둠 속에서 나타나 무전을 때리는 보안사 장교들.

92. 실내. 국방부 복도 - 밤

보초를 서고 있는 헌병 외에는 아무도 없다.

혼자 초조하게 어슬렁대는 홍주.

93. 실내. 국방부 화장실 - 밤

세수를 하고는 문 앞으로 들어가 총을 꺼내 실탄을 확인해 본다.  
한 발 뿐이 없다.

94. 실내. 총장 접견실 - 밤

홍주가 문을 열어본다. 아무도 없고 사병 하나만 졸고 있다.

사병

누구시죠?

문득 뭔가를 깨달은 홍주는 사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저쪽 문을 열어 제킨다.  
다른 통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엔 장승처럼 서있는 헌병 외엔  
아무도 없다. 사병에게 쫓겨서 나온다.

95. 실내. 현관 - 밤

공중전화에 매달려 있는 홍주.

홍주

(전화)..... 감쪽같이 사라지셨소...

나 모르게 체포된 건지도 모르겠소.....

복도 저쪽에서 장교 둘이 슬슬 다가오다 홍주가 눈치 채자 그 자리에 선다.

장교4

박대령님이시죠.

홍주

.....(전화) 나도 위험하게 된 거 같네....

장교4

좀 오시라는데요.

다가오려 하는 장교4.

수화기를 놓아버리고 총에 손을 대며 비실비실 뒷걸음치는 홍주.

장교4도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한다. 돌아서 마구 뛰는 홍주.

96. 실내. 궁정동 사무실 - 밤

선우

(전화, 긴장)..... 다시 말합니다.

코드일레븐 행방불명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는  
용산 육군 본부. 전 직원을 비상가동해서 코드일레븐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때 효조가 들어와 말없이 고개를 까딱한다.

선우

아 씨바 여기 혼자 처 박혀서 뭘 알아야....

움직이든 말든 하지....

97. 실내. 정동공작분실 지하 - 밤

제규가 의자에 앉아 물을 벌컥 들이키고 있다.  
수사관1이 현 군복을 테이블 위에 던진다.

수사관1

갈아입으세요!

수사관1, 제규의 옷옷을 벗긴다.  
와이셔츠에 피가 묻어있는 게 보인다.

수사관1

아이, 부장님 누구하고 싸우셨습니까?

제규는 말없이 바지를 벗는다.  
파자마 차림이 드러난다.

제규

나를 육군교도소나 서울구치소로 좀 보내주게.

수사관 1

예? 왜요?

제규

내가 여기 잡혀있다는 걸 알면 내 부하들이 여기 쳐들어  
올거야. 자네도 위험하네. 아군끼리 교전하믄 절대 안돼.

98. 실외. 궁정동 앞길 - 밤

여자 둘을 태우고 선우가 운전하는 차가 효조 등의 배웅을 받으며 빠져 나간다.

99. 실외. 차 안 - 밤

선우

... 아 참 정신없이 바쁜 밤이네요...

집에 가서 푹 쉬시고 입은 짹 좀 다무십시오.

선우가 말없이 두 여인에게 흰 봉투를 돌린다.

재선이 봉투를 꾸겨 넣고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부친다.

수봉이 흘끗 쳐다본다. 선우가 흘끗 쳐다본다.

재선

(약간 당황) 왜요, 피문 안되는 거예요?

선우

아니에요, 저도 한 대 주시고, 피세요.

불 붙인 담배를 선우에게 건네고 새 담배를 피워 무는 재선.

갑자기 수봉이 끼득끼득 울기 시작한다.

재선

함 대차게 놀아볼까 했는데 이게 뭐야?

수봉이 흐느낀다. 재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재선

(울먹) 울지마..... 언니가 왜 울어.... 울지 마.

수봉이 마구 운다.

재선이 눈물 똑똑 떨어뜨리며 수봉을 안는다. 담배를 물은 채.

재선

씨바 우린 멋두 모르고..... 이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백 미러로 보고 있는 선우.

100. 실외. 광화문 - 밤

선우가 수봉과 재선을 기다리고 있던 수봉의 매니저에게 인계한다.

그때 사이드 카의 호위를 받는 한 떼의 리무진이 코너를 돌아  
삼청동쪽으로 달려간다.

선우가 고개를 빼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쳐다본다. 쫓아간다.

101. 실외. 삼청동 - 밤

길 한복판에 나와선 헌병의 안내로 리무진들이 국군통합병원으로 들어간다.

차를 세우고 보는 선우.



선우

(곤혹스럽다) 뭐야, 이걸 또 어떻게 된거야.... 참...

호루라기를 불며 선우 쪽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표정의 헌병.

선우

(용기를 내서) 야, 뭐 일이나, 응?

안에 오신 분들 누구야?

헌병

(한방 먹고 기죽어서)

네? 누구예요? 통행금지도 지났는데.....

선우

짜샤, 물을 만한 사람이니까 묻지. 누구야, 응?

(신분증을 꺼내며) 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야.

그때 뒤에서 장교가 나온다. '뭐야, 거기?'

헌병

정보부에서 나오셨대는데요?

'뭐야? 체포해!' 헌병장교가 총을 꺼내며 다가오자 영겁결에 유턴해서 돌아 나오는 선우의 차.

102. 실내. 국군서울지구병원 - 밤

행한 수술실 한복판에 흰 시트로 덮여있는 침대. 군의관이 시트를 쳐든다.  
그 앞에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양복차림의 늙수그레한 국무위원들과  
고위 장성들.

멍하니 벌린 입, 초점 없는 눈, 창백한 이마위에 흘으러진 머리칼. 핏자국.  
김병주 준장이 띄여진 정의의 눈을 강제로 감긴다.

-(울음을 터뜨리며)..... 각하!

-아,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신 각하께서....

-이 일을 김일성이 알면 우이할꼬...

-자, 자 이렇게 아니라 우선 돌아가신 각하를 위한 경례를 하십시오.  
자, 각하를 위해 경례!

고개를 푹 숙인 사람, 오른손을 가슴에 갖다 댄 사람,  
거수경례를 하는 사람.

-아이고, 각하.....

-이제 우린 어쩌면 좋노.....

-자, 자. 각하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헌법은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지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십니다.

-각하에 대하여 경례!

옆쪽에 서 있던 최규하 쪽으로 돌아서서 경례를 하는 사람들.  
바람이 불었는지 정의를 덮고 있던 시트가 스르르 떨어진다.  
벗겨진 정의의 시체를 앞에 두고 최규하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작자들.

103. 실내. 서울 지구 병원 사무실 - 밤

옆 사무실에서 짜장면과 군만두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성욱과 형준.

성욱

내 요거 먹구, 회사 좀 갔다 올께.  
씨발, 뭐가 어케 돌아가는 줄 알아야지.

형준

나 혼자 여길 어떻게 지켜?

성욱

가서 지원 병력 데려 올거야. 심분도 안 걸려.

갑자기 짜장면을 입에 넣은 채 병진 표정을 짓고 있는 형준.  
성욱이 왜 그러냐 하면서 형준의 시선을 좇는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면 양복과 군정복을 입은 늙은이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짜장면 국수 가락이 두 사람 입에서 흘러내린다.

104. 실외. 광화문 앞 - 밤

광화문 앞 길을 달러가는 선우의 차가 갈팡지팡한다.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후진으로 뒤로 달려가 공중전화 앞에 멈춘다.  
공중전화로 뛰어 들어가는 선우.

선우

.... 야, 내말 잘 들어. 너 지금 애들 깨워서 처갓집으로  
가, 대방동으로. 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빨리!  
지금 당장이야! 끊어. (전화 끊고)  
야, 이 여편네야, 니 남편 완전 좆됐다구.....

다시 차를 몰고 갈팡질팡하더니 크게 유턴해서 달려가는 선우의 차.

#### 105. 에필로그 몽따쥬

-심문실 안, 의자에 앉은 제규가 수사관에게 구타당한다.  
나가떨어진 제규가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의자에 다시 앉는다.  
특수 창문을 통해 심문 과정을 보고 있는 전두한 보안 사령관과  
그의 졸개들.  
'저 또라이.... 저저... 저게 혼자 총질하고 지랄한 거 맞는 거 같지?'

#### 나레이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저 사내의 법정 최후 진술  
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는 설이 있다.  
글쎄,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읽어 보시도록.

-선우의 처갓집.  
단칸방에 애들 셋이 꾸르르 누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그의 처와 장모는 무릎 꿇고 엎드려 선우의 손을 잡고 절실한 목소리로  
기도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빛나시며....'  
멍하니 앉아 있던 선우는 나머지 손으로 권총을 꺼내 머리에 갖다댄다.

### 나레이션

저이는 재판정에서 대통령의 업적행각에 대해서  
털어놓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문은 무성하지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사형대에서 맹렬히 찬송가를 부  
르며 의연히 죽어갔다.

-여명이 떠오르는 강변가. 꾸겨 신은 흥주의 구두발.  
덜덜 떨며 공중전화에 매달려있다.

'.....알았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맘 굳게 먹어야 돼.....  
수련이 좀 깨워 봐. 깨워 봐, 글썄. 수련이니? 아빠야.....자다 깬어?  
아빠가 미안하다, 수련아. 근데 수련아, 수련이 몇학년이더라?'

### 나레이션

미래의 참모총장감이라던 저 사내. 현역 군인이었던 그는  
단심 끝에 총살당했는데 죽기 직전 대한민국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쳇 대한민국만세, 으이구 참 내....

-서울 지구 병원 리놀륨 바닥에 무지막지하게 내동댕이쳐지는 두 사내,  
성욱과 형준. 그 겁먹은 얼굴들.  
성욱이 웅얼댄다. '그 때 처음에 그냥 토졌어야 되는건데... 씨바'  
군화발로 짓밟히며 수갑이 채워진다.  
옆에는 짜장면 그릇이 엮어져 있다.

### 나레이션

둘은 함께 체포되었지만 총질에 가담했던 청년은  
사형되었고 다른 청년은 기소되지 않았다.

-궁정동 경비원 대기실을 카메라가 훑는다.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는 기조.

#### 나레이션

법정에서 그는 고막에 흐르는 고름에 대해 호소했고,  
가족 면회를 원했었다. 이 청년은 자기 생각보다는,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위리어, 전사였던 거 같다.  
사형 당했다.

-한 구석에서 전화통을 붙잡고 조용조용 속삭이는 태운.

'... 넬은 진짜 설 수 있을까야..... 어디 춘천이라도 나가서  
코구멍에 신선한 바람이라도 넣고 오자 응?'

#### 나레이션

(한숨 푹) 이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이들에  
총질을 했으며 영문도 모른 채 재판정에 섰다.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그가 식당에서 모른 척 쓰지 않았던 청와대 경호원은  
살아남았다.

- 대기실 가운데 책상위에서 밥을 먹으며 이곳저곳을 보고 있는 효조.  
나비넥타이를 한 목에 냅킨을 두르고 있다.

#### 나레이션

그날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 보았던 사내.  
그는 지독하게 철저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지 않았다.  
조사 중 곡괭이 자투로 엄청나게 맞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는 그 후에 잠적해 아무런 말이 없다.

106.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필름.

락풍으로 변주된 '올드랭사인'에 맞추어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조사를 읽는 김수환 추기경.

'주여, 여기 인간 박정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름처럼 모인 사람들.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의 얼굴들. 얼굴들.

우리들의 얼굴들.